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충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 “크리스마스 지출 줄여 우크라 국민 돋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지출을 절약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1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시티 바오로 6세홀에서 진행한 주례 일반 알현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파티를 여는 것은 좋지만 지출 수준은 조금 낮추자. 소박한 선물로 겸손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절약한 비용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돋자!”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자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춤고, 배고프고, 의료진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들을 잊지 말자. 크리스마스를 주님과 함께 평화롭게 보내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가슴 속에 품자!”고 덧붙였다.

“예수님·부처님 가르침 다르지 않아” 조계종,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 앞에 크리스마스트리 등이 켜졌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4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종교 간 이해와 존중을 위한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점등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 자리에서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며 “종교가 다른에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2010년부터 매년 트리등 점등식을 했으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별도 행사를 열지 않았다.



성탄에 복 받는 가정(누가복음 2:1-14)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옛날에 밤을 자지 아니하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연극을 준비하며 뛰어다니던 참으로 행복한 주억들을 회상하며 등심을 돌아가게 됨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려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태된 어린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home-less-people이 노숙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상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성탄의 은총을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계 가정의 명절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의 가정에 평화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축복의 가정이 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4)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성탄절의 평화의 왕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될 때에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의 가정 한 가운데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탄생될 때에,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되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



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평화가 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탄생될 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2. 어린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Christ(그리스도) + mass(천주교의 미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점성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는 예물을 들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카스파라는 동방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소유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넬파이이라는 동방박사는 사상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발타진이라는 박사는 물약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약을 드렸다

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성탄 예배하는 성탄이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3.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

성탄절은 흔로 지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홀로 지낼 수 없는 성탄절에 너그러운 마음, 남을 돋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탄절에 선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성탄에 평화의 왕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 김선도 목사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쉴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쉴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